警民篇 全

關西是箕聖故都而聖教旣遠民俗漸頹名爲士子者近雖稍稍向學能知禮法而至於愚民則敗倫犯常之事間多有之余以承流宣化之任今方自反深訟而謹以八條之遺義作八戒附于警民篇之末以警西土之愚民

관셔ᄂᆞᆫ 이 긔ᄌᆞ의 녯 도업이라 셩인의 ᄀᆞᄅᆞ치심이 임의 멀고 ᄇᆡᆨ셩의 풍쇽이 졈졈 문허디여 패륜 범샹ᄒᆞᄂᆞᆫ 일이 간간이 만히 이신이 내 흐롤블 넙고 교화를 펴ᄂᆞᆫ 소임으로써 이제 비야호로 스ᄉᆞ로 도로혀 깁피 슬허ᄒᆞ며 삼가 여ᄃᆞᆲ 가지 됴목으로

이를듯로ᄂᆞᆫ고녀히너기ᄂᆞᆫ밧재지를
이니스스로그텬셩을멸ᄒᆞᄂᆞᆫ作다

男女之欲 婚竝以媒
即人大防 奸則有刑
唉西之民 何責禽獸
或事強奪 自觸刑辟

ᄉᆞ나희와계집의욕심은곳사ᄅᆞᆷ의큰
방한이니라혼인ᄒᆞᆷ을반ᄃᆞ시듕미로
써ᄒᆞ고음간ᄒᆞ면곳형벌이잇ᄂᆞ니라
슬프다셔녁빅셩이여혹강인하야앗

기을일삼ᄂᆞᆫ또다어더새즘셩을칙망
ᄒᆞ리오스ᄉᆞ로형벌과죄예걸리이ᄂᆞᆫ
또다

重本尊祖 叛主或諱
豺獺不昧 爭財或冒
嗟西之民 彼蚩蚩者
胡寧忍此 曷比人類

근본을듕히너기고하나비을노피기
ᄂᆞᆫ일히와슈달도어돕더아니ᄒᆞ도다
항것비반ᄒᆞ니ᄂᆞᆫ흑곰초고저물ᄃᆞ토

너ᄂᆞᆫ혹무릅ᄡᅳᄂᆞᆫ또다슬프다셕ᄐᆡᆨ박
셩은엇디ᄎᆞ마이ᄅᆞᆯᄒᆞᄂᆞᆫ고뎌치치ᄒᆞᆫ
놈들은엇디사ᄅᆞᆷ의뉴에비기리오

壻爲外人 分亦宜讓
豈比子姓 專又何競
唉西之民 臨喪披髮
惟利是貪 使人大慚

사휘라ᄒᆞᄂᆞᆫ거ᄉᆞᆫ밧사ᄅᆞᆷ이되ᄂᆞ니엇
디셩ᄌᆞ손의게비길ᄲᅥ시리오ᄂᆞᆫ화도
ᄯᅩ셔양ᄒᆞ미맛당ᄒᆞ거니오온들ᄯᅩ엇

디ᄃᆞ돌써시리오슬프다셧텩빅셩이
여오직이니롤탐ᄒᆞᄂᆞᆫᄯᅩ다상ᄉᆞ을님
ᄒᆞ여머리을헤티기ᄂᆞᆫ사ᄅᆞᆷ으로ᄒᆞ여
곰크게붓그럽ᄯᅩ다

民於官長 過亦宜諱
曰爲父母 寃不越訴
唉西之民 直固宜罪
矢口無憚 誣豈偉遑

빅셩이관댱의게ᄂᆞᆫ골온부뫼라ᄒᆞᄂᆞᆫ
ᄯᅩ다허믈도ᄯᅩᄒᆞᆫ긔휘ᄒᆞ미맛당ᄒᆞ니

원억ᄒᆞ여도 깃너하더 못ᄒᆞᄂᆞᆫ ᄯᅡᄃᆞᆯ
프다셧븍빅셩이 여입을 ᄡᅩ와 ᄢᅥ리ᄂᆞᆫ
거시업ᄯᅩ다 발나도 진실로 죄ᄒᆞ미맛
당ᄒᆞ거든 거즛기시면 엇더다 힝이면
ᄒᆞ리오

凡民好訟 得或錙銖
利小害巨 失輒刀鉅
唉西之民 目以非理
何樂於此 寧不知恥

믈읫빅셩의 숑ᄉᆞᄅᆞᆯ 됴화ᄒᆞ미 니ᄂᆞᆫ늬

고해ᄂᆞᆫ크도다 엇ᄂᆞᆫ거ᄉᆞᆫ혹최슈오알
ᄒᆞ면믄득도게로다 슬프다셧ᄐᆡᆨ빅ᄉᆡᆼ
이여어이하야이ᄅᆞᆯ즐기ᄂᆞᆫ고비리라
ᄉᆡ눈주ᄂᆞ니엇디븟ᄯᆞ려옴을아디못
ᄒᆞᄂᆞᆫ다

農爲大本 浮游好蠹
外是皆末 倖不萬一
嗟爾之民 亟反南畝
胡失其業 以力吾穡

농ᄉᆞᄂᆞᆫ큰근본이되ᄂᆞ니이밧근다ᄉᆞᆺ

티되ᄂᆞᆫᄯᅩ다셰놀고관사로이좀히오
믄요힝ᄒᆞ미만에ᄒᆞ나히못되이ᄂᆞᆫᄯᅩ
다슬프다뎟텩빅셩이여엇더그업ᄒᆞᆯ
바룰일헛ᄂᆞᆫ고셜리놈텩이랑에도라
와써내가식을힘쓸셰어다

警民編序

夫制爲刑法은皆出於先王愛民之仁也ㅣ니不有以道之於先이오執法而論罔ㅣ면不幾於罔民乎아余自叨分陜憂로按所部ᄒᆞ야察民風ᄒᆞᆯᄉᆡ每當斷獄ᄒᆞ야未嘗不深喟於斯ᄒᆞ노니蚩蠢愚之民이不知人倫之重이어든焉知制法之詳이리오蚩蚩然有司乎譬贖ᄒᆞ며貿貿焉惟衣食之趣ᄒᆞ야自不覺其觸犯科條ᄒᆞ야流陷於罪辜ᄃᆡ어有司ㅣ於是에按律繩之면如罾羅捕雀이며機檻取獸ㅣ니烏在其使民遷善而遠辜耶ㅣ리오余爲之悶然ᄒᆞ야擧其最關於人道而民之所易犯者爲十三

條ᄒᆞ야 編曰警民이라ᄒᆞ야 刊行廣布ᄒᆞ야 俾諸蠢氓으로 雖不
習於耳目ᄒᆞ야 以冀其去惡從善之萬一ᄒᆞ노니 爲編을
必推本而擧理者ᄂᆞᆫ 欲民之有所感發而興起也오
引法而參訂者ᄂᆞᆫ 欲民之有所畏懼而知避也오 語
簡而辭俚者ᄂᆞᆫ 欲民之有所不學而易曉也니 將是
編ᄒᆞ야 歸之文具ᄒᆞ며 付之迂遠ᄒᆞ고 坐食公廩ᄒᆞ야 玩愒歲
月이오 其於導民化俗之道애 若不盡心而致譏焉이면
殊非編者之意니 凡我牧民者ᄂᆞᆫ 尚亦念哉어다
正德己卯春觀察使義城金正國書

그 형벌과 法법을 밍그롬은 다 녯 님금의 ᄇᆡᆨ셩ᄉᆞ

량ᄒᆞ시고어딘ᄆᆞᄋᆞᆷ으로셔낫ᄂᆞ니ᄲᅥ몬져인도
ᄒᆞ미잇디아니ᄒᆞ고法법만자바죄ᄅᆞᆯ의논ᄒᆞ면
ᄇᆡᆨ셩을소기매갓갑디아니ᄒᆞ랴ᄲᅥ외람히陜협
근심을논화맛디심으로브터이제셔라감맛든ᄉᆡᆨ흘
안ᄒᆡᆼᄒᆞ여ᄇᆡᆨ셩의풍쇽을솔필ᄉᆡ미양죄인볼단
ᄒᆞ기예當당ᄒᆞ야일즉이예기피애ᄃᆞ라아닐적
이업ᄂᆞ니무디ᄒᆞ고어린ᄇᆡᆨ셩이人인倫눈부ᄌᆞ군신
부부댱유붕우오눈이라의重듕ᄒᆞᆫ줄을아디못ᄒᆞ거든엇디
법졔의ᄌᆞ셰ᄒᆞᆷ을알리오미련ᄒᆞ미눈멀고귀머
그니ᄆᆞᄃᆞ며무디히오직옷과밥의ᄃᆞ라드리ᄉᆞ

소로그법에범ᄒᆞᆫ논줄을셔도ᄃᆞ못ᄒᆞ야죄예흘리ᄲᅡ디거든관원이이예법을자바다ᄉᆞ리면그물로새를잡으며함졍으로증싱을잡음ᄀᆞᄐᆞ니어ᄃᆡ그ᄇᆡᆨ셩으로ᄒᆞ여곰얼던ᄃᆡ로올마죄예멀게호미이시리오내爲위ᄒᆞ야민망이너겨그ᄀᆞ장사ᄅᆞᆷ의도리에관계ᄒᆞ고ᄇᆡᆨ셩의犯범키쉬온거슬드리열세됴건을ᄒᆞ야일홈을ᄇᆡᆨ셩경계ᄒᆞᄂᆞᆫ칙이라ᄒᆞ야남그사겨너비베퍼미혹ᄒᆞᆫᄇᆡᆨ셩으로ᄒᆞ여곰귀와눈에니기ᄃᆡ아니ᄒᆞ미엄게ᄒᆞ여며그사오나오믈ᄇᆞ리고어딜믈좃기예萬만一

일이나 ᄒᆞᆫ가 ᄇᆞ라노니 ᄎᆡᆨ을 ᄆᆡᆼ글기를 반ᄃᆞ시 근
본을 미뤼며 도리를 들어 니롬은 ᄇᆡᆨ셩이 感감發
발ᄒᆞ야 興흥起긔홈이 잇과 ᄯᅡ호미오 法법을 樹
참증ᄒᆞ야 의논호믄 ᄇᆡᆨ셩이 저히 두려 죄를 避피
ᄒᆞᆯ 줄을 알 째 잇과 ᄯᅡ호미오 말ᄉᆞᆷ이 간냑ᄒᆞ고 글
을 샹담으로 호믄 ᄇᆡᆨ셩이 비호디 아니ᄒᆞ야도 알
기 쉽과 ᄯᅡ호미니 이 ᄎᆡᆨ을 가져 文문具구에 도라
보내며 透오 遠원ᄒᆞᆫ 디 브티고 안자셔 나라 녹만
너그며 셰월을 누노라 디내고 그 ᄇᆡᆨ셩을 미도ᄒᆞ
풍쇽을 감화케 ᄒᆞᆯ 리예 ᄆᆞ옴을 극진히 ᄒᆞ며

졍셩을별우디아니ᄒᆞ면ᄉᆞ못이칙망근의뜻이
아니니믈읫우리빅셩다ᄉᆞ리논사름은거의ᄯᅩ
효념티호올ᄯᅥ어다

正졍德덕大대明명武무宗종皇황帝뎨年년號호己긔卯묘我아中듕宗종大대
王왕十십四ᄉᆞ年년春츈觀관察찰使ᄉᆞ義의城셩金김正졍
國국書셔齋지官관至지禮례書셔參참判판己긔金김正졍國국字ᄌᆞ國국弼필號호思ᄉᆞ
卯묘名명人인也야

警民編目錄

思齋金正國 著

警民編目錄終

警경民민編편

思齋金正國 著

父부母모第뎨一일

父如天ᄒᆞ시고 母如地라 欲勞生我ᄒᆞ샤 辛勤乳哺ᄒᆞ며 시 艱難養育ᄒᆞ니 시 父母恩德은 昊天罔極이로다 祖父母ᄂᆞᆫ 生我父母ᄒᆞ니 시 與父母無異라 是故로 善事父母ᄒᆞ야 孝順無違ᄒᆞ면 鄕里稱善ᄒᆞ며 國有褒賞이라 이ㅣ 律에 祖父母의 父母를 謀殺則凌遲處死ᄒᆞ고 毆打則斬ᄒᆞ고 罵詈則絞ᄒᆞ고 不聽敎令ᄒᆞ며 不謹奉養則皆杖一百ᄒᆞ고 父母를 告訴則其罪至重ᄒᆞ니 守信繼母ᄂᆞᆫ 與親母로 同ᄒᆞ니라

아비ᄂᆞᆫ하ᄂᆞᆯᄀᆞᄐᆞ시고어미ᄂᆞᆫᄯᅡᄀᆞᄐᆞ신디라슈
고로이날을나ᄒᆞ샤괴롭고ᄇᆞ즈런니졋머기시
며갓가ᄉᆞ로길러내시니父부母모의은혜와덕
은하ᄂᆞᆯᄀᆞᄐᆞ여ᄀᆡ이업도다祖조父부母모ᄂᆞᆫ내父
부母모를나ᄒᆞ시니父부母모로브터부리ᄃᆞᄅᆞ미
엽스니라이런故고로父부母모를ᄌᆞᆯ셤겨효도
ᄒᆞ고슌ᄒᆞ야어긔옴이업ᄉᆞ면ᄆᆞᄋᆞᆷ을상ᄒᆞᆷ도어디
다일ᄏᆞᄅᆞ며나타히셔ᄂᆞᆫ그장ᄒᆞ야賞상ᄒᆞᆷ애잇
ᄂᆞ니라法법에祖조父부母모와父부母모를주
기믈ᄭᅬᄒᆞ면凌능遲디[illegible]ᄒᆞ고

티면목버히고仟지不면絞교목졸라기미라주ᄒᆞ고下
ᄅᆞ치고시기ᄂᆞᆫ일을듯디아니ᄒᆞ며奉봉養양ᄒᆞ
기를삼가아니ᄒᆞ면다杖댱一일百ᄇᆡᆨᄒᆞ고父부
母모ᄅᆞᆯ구의예할면罪죄지극히重듕ᄒᆞ니라슈
졀ᄒᆞᆫ繼계母모ᄂᆞᆫ親친母모로더브러ᄒᆞᆫ가지니
라

夫부妻쳐第뎨二이

夫妻ᄂᆞᆫ結緣ᄒᆞ야百年同居ᄒᆞᄂᆞ니夫須念妻ᄒᆞ고妻須順
夫ᄒᆞ야雖有不協이라도夫益忍怒ᄒᆞ며妻益致順ᄒᆞ야家
道ㅣ不敗ᄒᆞᄂᆞ니是故로夫妻和樂ᄒᆞ면永保厥家ᄒᆞ고乖

戾不和ᄒᆞ면終致禍亂ᄒᆞᄂᆞ니라 法에妻ㅣ謀殺其夫則凌
遲處死ᄒᆞ고毆打則杖一百ᄒᆞ고重傷則絞ᄒᆞ고致死則斬
ᄒᆞ고背夫則杖一百ᄒᆞ고因而改嫁則絞ᄒᆞ고夫之祖父母
와父母ᄅᆞᆯ毆打則斬ᄒᆞ고罵詈則絞ᄒᆞ고告訴則杖一百
徒役ᄒᆞ고夫之族親尊丈을毆打罵詈則其罪至重ᄒᆞ고
他夫潛奸則杖九十ᄒᆞ고背夫改嫁則絞ᄒᆞ며夫ㅣ毆打
其妻ᄒᆞ야致死則絞ᄒᆞ고重傷則亦皆有罪ᄒᆞ며妻父母ᄅᆞᆯ
毆打則杖一百ᄒᆞ고折傷則加等ᄒᆞ고篤疾則絞ᄒᆞᄂᆞ니라

부뷔ᄂᆞᆫ연분을ᄆᆡ자百ᄇᆡᆨ年년을ᄒᆞᆫᄃᆡ사ᄂᆞ니지
아비ᄂᆞᆫ모로미계집을권념ᄒᆞ고계집은모로미

지아비ᄅᆞᆯ슌죵ᄒᆞ야비록맛ᄀᆞᆺ디못ᄒᆞ미이실셔
라도지아비논티옥怒노ᄅᆞᆯ춤으며계집은티옥
順슌ᄒᆞ모ᄅᆞᆯ블위예야家가道도ㅣ敗패티아니ᄒᆞ
리니이런故고로夫부妻쳐ㅣ和화樂락ᄒᆞ면기
리그집을보젼ᄒᆞ고버거여ᄃᆡ和화티못ᄒᆞ면ᄆᆞ
ᄎᆞᆷ내禍화와亂난을닐위ᄂᆞ니라 法법에계집이
그남진을ᄭᅴᄒᆞ야주기면淩능遲디處쳐死ᄉᆞᄒᆞ
고티면杖댱一일百ᄇᆡᆨᄒᆞ고重듕히傷샹ᄒᆞ면絞
교ᄒᆞ고주기예니르면斬참ᄒᆞ고지아비ᄅᆞᆯ비반
ᄒᆞ면杖댱一일百ᄇᆡᆨᄒᆞ고因인ᄒᆞ야改ᄀᆡ嫁가ᄒᆞ

면絞교ᄒᆞ고지아븨祖조父부母모와父부母모를티면목버히고ᄭᅮ지지즈면絞교ᄒᆞ고솜고ᄒᆞ야할면杖댱一일百ᄇᆡᆨ도틴귀향가고지아븨권당어룬을티거나ᄭᅮ지ᄌᆞ면그죄지극히듕ᄒᆞ고다룬남진을潛ᄌᆞᆷ奸간ᄒᆞ면杖댱九구十십ᄒᆞ고지아비를비반ᄒᆞ고改ᄀᆡ嫁가ᄒᆞ면絞교ᄒᆞ며지아비그계집을텨주금애니르면絞교ᄒᆞ고重듕히傷샹ᄒᆞ면徒도ᄒᆞᆫ다罪죄이시며妻쳐父부母모를티면杖댱一일百ᄇᆡᆨᄒᆞ고브르텨傷샹ᄒᆞ면죄를더주고듕ᄒᆞᆫ병이되면絞교ᄒᆞᄂᆞ니라

兄형弟뎨姉ᄌᆞ妹미 第뎨三삼

兄弟와姉妹ᄂᆞᆫ與我로同出於父母ᄒᆞ야同氣而異體ㅣ니骨肉至親이無如兄弟어ᄂᆞᆯ無知之人이爭小利害ᄒᆞ야鬪爭不和ᄒᆞ야遂爲仇讎ᄒᆞᄂᆞ니與禽獸로奚擇이리오

兄須愛弟ᄒᆞ며弟必敬兄ᄒᆞ야無相疾怨이니數口奴婢ᄂᆞᆫ有時而逃亡病死ᄒᆞ며數畝田地ᄂᆞᆫ有時而川反浦落ᄒᆞ야終歸無益이니와兄弟姉妹ᄂᆞᆫ相殘不和ᄒᆞ면鄕里皆斥ᄒᆞ며國有常法ᄒᆞ니라

法에據執合幸ᄒᆞ면則杖一百徒役ᄒᆞ고不和則杖八十ᄒᆞ고弟妹ㅣ兄姉를罵詈則杖一百ᄒᆞ고毆打則杖九十徒役ᄒᆞ고重傷則杖一百全家入居

고ᄒᆞ篤疾則絞ᄒᆞ고告訴則杖一百ᄒᆞᄂᆞ니라

형과아ᄋᆞ과ᄆᆞᆺ누의과아ᄋᆞ누의ᄂᆞᆫ날로더브러
ᄒᆞᆫ가지로父부母모긔셔나시니그운이ᄒᆞᆫ가지
오얼굴만다ᄅᆞ니骨골肉육의지극히親친ᄒᆞᆫ이
兄형弟뎨ᄀᆞᄐᆞ니업거ᄂᆞᆯ無무知디ᄒᆞᆫ사ᄅᆞᆷ이죠
고만利리ᄂᆡ며害해ᄅᆞᆯᄃᆞ토와ᄡᆞ홈ᄒᆞ며不블和화
ᄒᆞ아드듸여仇구讎슈ㅣ되ᄂᆞ니즘ᄉᆡᆼ으로더브
러어이다ᄅᆞ리오兄형은모로미아ᄋᆞᄅᆞᆯᄉᆞ랑ᄒᆞ며
아ᄋᆞᄂᆞᆫ반ᄃᆞ시兄형을공경ᄒᆞ야서ᄅᆞ믜워ᄒᆞ며
원티말올디니두어귀奴노婢비ᄂᆞᆫ잇다감逸도

ᄡᅳ맛ᄒᆞ거나病병드러주그미이시며누어이령
田뎐地디논잇다감ᄀᆡ천反번(빗믈의두ᄃᆡ 뎐말이라)ᄒᆞ거
二 나ᄀᆡ녹대(갯몰의벼러 난말이라)홈이이쉬ᄆᆞ춤내無무益익
ᄒᆞᄃᆡ도라가거나와兄형弟뎨와姊ᄌᆞ妹미쉬로
잔해ᄒᆞ야和화티못ᄒᆞ면ᄆᆞ을히다비쳑ᄒᆞ며나
라히도응당ᄒᆞᆯ法법이잇ᄂᆞ니라 律 법에지믈을
거탈ᄒᆞ야가지거나모도가지거나ᄒᆞ면杖댱一
일百ᄇᆡᆨ도텬귀향가고不블和화ᄒᆞ면杖댱八팔
十십ᄒᆞ고아ᄋᆞ과아ᄋᆞ누의라셔형과ᄆᆞᆮ누의ᄅᆞᆯ
ᄭᅮ지즈면杖댱一일百ᄇᆡᆨᄒᆞ고티던杖댱九구十

십도탄귀향가고重듕히傷샹졔ᄒᆞ면楪당一일百ᄇᆡᆨ全젼家가入입居거가고듕ᄒᆞᆫ병이되면絞교ᄒᆞᆫ고구의예하쇼서리면楪당一일百ᄇᆡᆨᄒᆞᄂᆞ니라

族족親친第뎨四ᄉᆞ

三寸叔父母ᄂᆞᆫ與我父母로同出於一人ᄒᆞ시父母如等ᄒᆞ고三寸姪及女ᄂᆞᆫ皆我同氣之所出이니與吾親子女로無間ᄒᆞ고自四五寸至七八寸이雖有親疎遠近之異ᄒᆞ나皆是一人之子孫이라比如木ᄋᆡ同根而異枝며比如水ᄋᆡ同源而異派ㅣ니復愛敬尊長ᄒᆞ며撫恤

卑幼ᄒᆞ야 毋相鬪爭이니라 法에 三寸叔父母를 罵詈則杖六十徒役ᄒᆞ고 毆打則杖一百徒役ᄒᆞ고 重傷則杖一百全家入居ᄒᆞ고 篤疾則絞ᄒᆞ고 故殺則凌遲處死ᄒᆞ고 告訴則杖一百ᄒᆞ고 其餘族親이 互相毆鬪不睦ᄒᆞ면 親疎分揀ᄒᆞ야 差等治罪ᄒᆞ되 尊者는 減等ᄒᆞ고 卑幼는 加等ᄒᆞ니라

三삼寸촌아ᄌᆞ버이ᄂᆞᆫ 내 父부母모와 ᄒᆞᆫ 사ᄅᆞᆷ의게로셔 나거시니 내 父부母모와 ᄀᆞᆺ고 三삼寸촌족하와 맛딜녀ᄂᆞᆫ 다 내 同동氣긔의 난배니 내 親친子ᄌᆞ女녀와 간뎍이 업고 四ᄉᆞ五오寸촌으로

븟터七칠八팔寸촌에니르히비록親친ᄒᆞ며疎
소ᄒᆞ며멀며갓가오미다ᄅᆞ미이시나다ᄒᆞᆫ사ᄅᆞᆷ
의子ᄌᆞ孫손이라남긔比비컨대블희ᄒᆞᆫ가지오
가지다ᄅᆞᆷ이미믈의比비컨대근원이ᄒᆞᆫ가지오
가래다ᄅᆞᆷ이니모ᄅᆞᆷ이어론을ᄉᆞ랑ᄒᆞ야공경ᄒᆞ
며놋고어린이를에엿비너겨서르싸호고ᄃᆞ토
디말올셔니라 法법에三삼寸촌아자비를ᄌᆞ
지ᄌᆞ면杖댱六뉵十십도ᄐᆡᆫ귀향가고티면杖댱
一일百ᄇᆡᆨ도ᄐᆡᆫ귀향가고重듕히傷샹케ᄒᆞ면杖
댱一일百ᄇᆡᆨ全젼家가ᄒᆞ入입居거ᄒᆞ고듕ᄒᆞᆫ病병

이되면絞교ᄒᆞ고짐ᄌᆞ주기면凌능遲디處쳐死
ᄉᆞᄒᆞ고구의예할면杖댱一일百ᄇᆡᆨᄒᆞ고그나믄
권당이서로ᄃᆞ러싸화화목디아니ᄒᆞ면親친ᄒᆞ며
疏소ᄒᆞ니ᄅᆞᆯ分분揀간ᄒᆞ야등수ᄅᆞᆯ다ᄅᆞ게ᄒᆞ야
治티罪죄호ᄃᆡ놉고어룬으란등수ᄅᆞᆯ덜고ᄂᆞᆺ고
져므니란등수ᄅᆞᆯ더으ᄂᆞ니라

奴노主쥬第뎨五오

奴主ᄂᆞᆫ有君臣之分ᄒᆞ니事之盡誠ᄒᆞ야毋或違逆ᄒᆞ라法
에家長을謀殺則凌遲處死ᄒᆞ고毆打則斬ᄒᆞ고罵詈則
絞ᄒᆞ고告訴則杖一百徒役ᄒᆞ고家長의族親을毆打ᄒᆞ며

罵詈도ᄒᆞ야 其罪至重라ᄒᆞ니

죵과향것과ᄂᆞᆫ님금과신하의分분이잇ᄂᆞ니셤
기기를졍셩을다ᄒᆞ야 죠곰도어긔로며거스리
디말올디니라 法법에향거슬ᄭᅴᄒᆞ야주기면凌
능遲디處쳐死ᄉᆞᄒᆞ고향거슬티면斬참ᄒᆞ고仵
지ᄌᆞ면絞교ᄒᆞ고구의예할면杖댱一일百빅도
텬귀향가고향거싀결례권당을티거나仵지러
도그罪죄ㅣ쟝重듕ᄒᆞ니라

鄰년里니第뎨六뉵

鄰里ᄂᆞᆫ與我로同住一處ᄒᆞ야有無相資ᄒᆞ며患難相救

ᄒᆞ며 義同親戚이라 毋侵暴殘弱ᄒᆞ며 毋凌辱尊老ᄒᆞ고 交相
委曲ᄒᆞ야 務爲和睦이니 鄰里不和ᄒᆞ면 患難不相救ᄒᆞ며 死
亡不相扶ᄒᆞ야 相爲仇隙ᄒᆞ야 終致不測이니라 法에 豪強
之人이 侵損於民ᄒᆞ면 全家入居ᄒᆞ고 卑賤之人이 凌犯
尊屬ᄒᆞ면 亦皆有罪ᄒᆞ니라

隣닌里니ᄂᆞᆫ 날로 ᄃᆡ브러 ᄒᆞᆫ가지로 ᄒᆞᆫᄃᆡ 셔 살아
인ᄂᆞᆫ 것 업ᄂᆞᆫ 거ᄉᆞᆯ 서르 ᄌᆞ뢰ᄒᆞ며 患환難난의 서
르 救구ᄒᆞ니 분의 권당ᄀᆞᆺᄐᆞ니라 殘잔弱약ᄒᆞ니
ᄅᆞᆯ 침노ᄒᆞ야 보채디 말며 어룬이며 늘근이ᄅᆞᆯ 凌
능辱욕ᄒᆞ디 말고 서르 관곡히 ᄒᆞ야 힘ᄡᅥ 和화睦

목ᄒᆞᆯᄯᅵ니ᄆᆞᄋᆞᆷ을히和화티못ᄒᆞ면患환難난의서
르救구티아니ᄒᆞ며죽으매서르돌보디아니ᄒᆞ
야서르원슈혐극이되야ᄆᆞᄎᆞᆷ내不블測측ᄒᆞᆫ일
에닐위ᄂᆞ니라 法법에豪호強강ᄒᆞᆫ사ᄅᆞᆷ이ᄇᆡᆨ셩
을침노ᄒᆞ야해ᄒᆞᄂᆞ니논全젼家가ㅅ入입居거ᄒᆞ
고ᄂᆞᆽ고賤쳔ᄒᆞᆫ사ᄅᆞᆷ이놉흔어른을업슈이너겨
침범ᄒᆞ면ᄯᅩᄒᆞᆫ다罪죄잇ᄂᆞ니라

鬪투毆구第뎨七칠

一 戒與人鬪毆ㅣ有害而無益ᄒᆞ니人雖以橫怒로加
我ᄒᆞ나我須以和悅로待之ᄒᆞ며雖有強暴之人이毆傷

我體ᄒᆞ야 攘奪我財라도 勿與較爭ᄒᆞ고 必告官司ᄒᆞ야 辨正ᄒᆞ라 人之死生이 在於頃刻ᄒᆞ니 不忍片時之忿ᄒᆞ야 下手傷殞ᄒᆞ면 終致無窮之悔니라 法에 毆打則笞三十ᄒᆞ고 致傷則笞四十ᄒᆞ고 拔髮則笞五十ᄒᆞ고 出血則杖八十ᄒᆞ고 折一齒一指어나 眇一目이어나 毁耳鼻어나 以穢物로 灌口中臭內則杖一百ᄒᆞ고 折二齒以上이어나 墮胎어나 刃傷人則杖八十ᄒᆞ고 徒役ᄒᆞ고 以至篤疾則杖一百流三千里ᄒᆞ고 因而致死則絞ᄒᆞᄂᆞ니라

대강혼ᄃᆡ 사ᄅᆞᆷ과 더브러 ᄡᅡ홈이 害해로오미 잇고 유익홈이 업ᄉᆞ니 사ᄅᆞᆷ이 비록 아니홀 恕노로

뻬내거던올디라도내모로미和화悅열ᄒᆞ기로
뻬ᄃᆡ답ᄒᆞ며비록強강暴포ᄒᆞᆫ사ᄅᆞᆷ이이셔내몸
을텨헤야ᄇᆞ리며내ᄌᆡ믈을아사도더브리걸워
ᄃᆞ토디말고반ᄃᆞ시구ᄂᆡ에告고ᄒᆞ야辨변正졍
ᄒᆞ라사ᄅᆞᆷ의死ᄉᆞ生ᄉᆡᆼ이져근덧ᄉᆞ이예인ᄂᆞ니
ᄒᆞᆫ빼예노호오믈ᄎᆞᆷ디못ᄒᆞ야손을디허傷샹ᄎᆡ
나죽거나ᄒᆞ면ᄆᆞᄎᆞᆷ내無무窮궁ᄒᆞᆫ뉘오ᄎᆞᆷ이되
ᄂᆞ니라 法법에티면쏨티三삼十십ᄒᆞ고傷샹호
매니ᄅᆞ면쏨티四ᄉᆞ十십ᄒᆞ고머리터럭을ᄲᆡ이
면쏨티五오十십ᄒᆞ고피나면杖댱八팔十십ᄒᆞ

고ᄒᆞᆫ니며손발ᄒᆞᆫ가락것거나ᄒᆞᆫ눈을멀오거나
귀며코흘ᄒᆞ야ᄇᆞ리거나티러온거스로배입가
온대며코안히브으면杖댱一일百ᄇᆡᆨᄒᆞ고두니
로ᄢᅦ우흘디거나빈ᄌᆞ식을듸오거나놀연쟝으
로사ᄅᆞᆷ을傷샹ᄒᆞ요거나ᄒᆞ면杖댱八팔十십도
틴귀향가고듕ᄒᆞᆫ병이되기예니르면杖댱一일
百ᄇᆡᆨ流뉴三삼千쳔里니ᄒᆞ고인ᄒᆞ야죽으매니
르면絞교ᄒᆞᄂᆞ니라

勤근業업第뎨八팔

大抵窮餓丐乞者ㅣ皆是不勤業之人이라耕種을頃

뭇니風霜이可畏오除草을須勤이니草茂則害苗ㅣ니
라雖片地陳荒이도ㄷ強勉起耕이니當春夏之時ᄒᆞ야雖
似勞苦ᄒᆞ나秋成収穫이倍蓰於他家ᄒᆞ야凶年이不能
害ᄒᆞ야人雖飢餓流離ᄒᆞ나我則飽煖安逸ᄒᆞ야卒歲無憂
ᄒᆞᄂᆞ니라法에惰農이不勤服田ᄒᆞ면陳田을皆収其稅ᄒᆞ고
守令이考察論罪ᄒᆞᄂᆞ니라不特農家ㅣ爲然이라蠶織工
商之人도各勤其事ᄒᆞ야毋少怠惰씨라衣食周足ᄒᆞᄂᆞ
니人無恒業ᄒᆞ야游手游食ᄒᆞ면我雖不爲盜賊이나人必
以盜賊으로指我ᄒᆞ야有時陷於罪辜ᄒᆞᄂᆞ니라
대강ᄒᆞᆫ디가난ᄒᆞ야술머丐개乞걸ᄒᆞᄂᆞᆫ거시다

이소업을브즈런이아니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라브틈ᄒᆞ
기ᄅᆞᆯ모ᄅᆞᆷ이일즉이ᄒᆞᆯᄭᅥ니ᄇᆞ룸과시리가히두
렵고미기ᄅᆞᆯ모로미브즈런이ᄒᆞᆯᄭᅥ니플이기으
면곡셕을害해ᄒᆞᄂᆞ니라비록조각만ᄒᆞᆫᄯᅡ히무
거셔도힘배起긔耕경ᄒᆞᆯᄭᅥ니봄파티롬ᄉᆞ이예
다ᄃᆞ라셔ᄂᆞᆫ비록곳바고로온ᄃᆞᆺᄒᆞ나ᄆᆞ을희거
두ᄂᆞᆫ거ᄉᆞᆫ놈의게셔비ᄇᆡᄒᆞ야凶흉年년이能능
히害해티못ᄒᆞ야사ᄅᆞᆷ이비록굶주려流뉴離니
ᄒᆞᆯᄭᅥ라도나ᄂᆞᆫ비브ᄅᆞ고덥고편안ᄒᆞ야희ᄅᆞᆯ므ᄃᆞ
춀근심이업ᄂᆞ니라 法 법에게이른농뷔밧갈호

기ᄅᆞᆯ브즈런이아니ᄒᆞ면무근터ᄅᆞᆯ다그구실을거두고守슈令령이考고察찰ᄒᆞ야罪죄ᄅᆞᆯ주ᄂᆞ니라ᄒᆞᆫ갓티ᄅᆞᆷ지이ᄒᆞᄂᆞᆫ집이그럴ᄲᅮᆫ이아니라누에치며질삼ᄒᆞ며셩텽ᄒᆞ며댱ᄉᆞ질ᄒᆞᄂᆞᆫ사ᄅᆞᆷ도각각그일을브즈런이ᄒᆞ야죠곰도게을리마라사옷과밥이周쥬足족ᄒᆞᄂᆞ니사ᄅᆞᆷ이샹해ᄒᆞᄂᆞᆫ소업이업서손을노로며놀고머그면내비록盜도賊적을아니ᄒᆞ나사ᄅᆞᆷ이반ᄃᆞ시盜도賊적으로ᄇᆡ놀을지목ᄒᆞ야잇다감죄예ᄲᅡ디ᄂᆞ니라

儲뎌積젹第뎨九구

農家ㅣ無遠慮ᄒᆞ야秋收之後에恃其穀賤ᄒᆞ야姑息放心ᄒᆞ야醉飽朝夕ᄒᆞ며釀酒作餠ᄒᆞ야濫用殆盡故로春夏農務之時예必告飢窘ᄒᆞ야未得力業ᄒᆞᄂᆞ니一瓶之酒와數器之餠이可活一朔이라秋冬애撙節儲積ᄒᆞ야深藏不費ᄒᆞ야以備農糧ᄒᆞ라安東之人은今秋애收穫ᄒᆞ야明年春夏所食을計除堅藏ᄒᆞ고餘穀으로撙節喫破故로農不失業ᄒᆞ야雖遇凶荒이라도不患飢餓ᄒᆞ고此道之人은秋成卽時濫食無節ᄒᆞ야不用升斗ᄒᆞ고作餠炊食ᄒᆞ야朝飽不計夕飢故로一遇不稔ᄒᆞ면餓殍相望ᄒᆞᄂᆞ니

深思利害ᄒᆞ야務爲儲積ᄒᆞ라【諺】에濫費會飮이亦有罪
焉라ᄒᆞ니
녀름짓ᄂᆞᆫ집이먼혐이업서ᄀᆞ을거둔後후에그
곡식賤쳔홈을미더안죽으로ᄆᆞᄋᆞᆷ을노화朝됴
夕셕의ᄇᆡ브ᄅᆞ기ᄅᆞᆯ取취ᄒᆞ며술빗고셕믠ᄃᆞ라
남잡히ᄡᅳ기ᄅᆞᆯ거의다ᄒᆞ모로봄파녀름의녀ᄅᆞᆯ
지이힘ᄡᅳᆯ배예반ᄃᆞ시주리고窘군호매苦고ᄒᆞ
와녀름지이도힘버못ᄒᆞᄂᆞ니ᄒᆞᆫ甁병술과두어
그릇ᄯᅥᆨ이가히ᄒᆞᆫ돌온살ᄲᅵ시라ᄀᆞ을피며올히
撙존節졀ᄒᆞ며儲뎌積젹ᄒᆞ야기피간슈ᄒᆞ야허

비티아니ᄒᆞ야ᄇᆞ려ᄃᆞᆫ지을냥식을ᄀᆞ촐디니라
安안東동사ᄅᆞᆷ은올ᄀᆞ올히거ᄃᆞᆫ거스로明명年
년봄과녀ᄅᆞᆷ머글거슬헤아려구ᄃᆡ관유ᄒᆞ고남
은곡셕으로撙존節졀ᄒᆞ야머그모로농뷔소업
을일티아니ᄒᆞ야비록쇠흉荒황을만나도굶주
리기ᄅᆞᆯ근심티아니ᄒᆞ고北북道도사ᄅᆞᆷ은츄셩
에卽즉時시혜피먹기ᄅᆞᆯ無무節졀히ᄒᆞ야되와
말을ᄡᅳ디아니ᄒᆞ고셕ᄃᆞᆯ글ᄀᆞ고밥지어아ᄎᆞᆷ의비
브ᄅᆞᆯ션졍나죄비곱흘줄을헤아리디아니ᄒᆞᄂᆞ
故고로ᄒᆞᆫ번티ᄅᆞᆷ됴티아년서글만나면주려주

그리워ᄅᆞ니엇ᄂᆞ니利니ᄒᆞ며害해로오믈기피싱각ᄒᆞ야힘ᄡᅥ儲뎌積젹을ᄒᆞᆯ디니라 法 법에남잡히허비ᄒᆞ야못ᄆᆞ지ᄒᆞ야술ᄆᆡ기홈이ᄯᅩᄒᆞᆫ罪죄잇ᄂᆞ니라

詐사僞위第뎨十십

凡事를須務誠實ᄒᆞ고不謀詐僞니詐僞之事ᄂᆞᆫ終難掩覆ᄒᆞ야必陷於罪辜라ㅣ니 法 에詐僞官文書者ㅣ重則杖一百流三千里ᄒᆞ고輕則杖一百徒役ᄒᆞ고文記僞造則杖一百徒役ᄒᆞ고印信僞造則斬ᄒᆞ고詐稱官差則杖一百徒役ᄒᆞ고詐稱時任官子弟奴屬作弊則杖一

百파ᄒᆞ誣告則反坐其罪ᄒᆞᄂᆞ니라
믈읫일을모롬이誠셩實실ᄒᆞ기ᄅᆞᆯ힘ᄡᅥᄒᆞ고관
사ᄒᆞᆫ거즛일을ᄢᅵᄒᆞ디말올ᄯᅥ나간사ᄒᆞᆫ거즛일
은모ᄎᆞᆷ내ᄀᆞ리오고둣텁기어려워반ᄃᆞ시죄에
ᄲᅡ디ᄂᆞ니라(法법에구윗文문書셔간사히거즛
것ᄒᆞᆫ者자ㅣ重즁ᄒᆞ면杖댱一일百ᄇᆡᆨ三삼千쳔
里니귀향가고輕경ᄒᆞ면杖댱一일百ᄇᆡᆨ도년귀
향가고文문記긔僞위造조ᄒᆞ면杖댱一일百ᄇᆡᆨ
도년귀향가고印인信신을僞위造조ᄒᆞ면斬참
ᄒᆞ고거즛셔官관差ᄎᆡ로라ᄒᆞ면杖댱一일百

벽도텬귀향가고거ᄌᆞᆺ거ᄉᆞᆯ時시任임관원의子
ᄌᆞ弟뎨며죵브티로라ᄒᆞ고作작弊폐ᄒᆞ면杖댱
一일百빅ᄒᆞ고거ᄌᆞᆺ일을告고ᄒᆞ면그罪죄로反
반坐좌ᄒᆞ고ᄒᆞ여금뎌ᄒᆞ면뎍ᄒᆞᄂᆞ니라를제게깁히ᄒᆞ란말이라

犯범奸간第뎨구십一일

男女情欲이易熾而難防이라所當謹愼者ㅣ莫如奸
事ㅣ니小不忍則終陷不測이라이니法에和奸則杖八十
ᄒᆞ고有夫女和奸則杖九十ᄒᆞ고强奸則絞ᄒᆞ고十二歲以
下幼女를通奸則亦絞ᄒᆞ고親屬相奸ᄒᆞ면一切親則死罪
외疎親則以次減等ᄒᆞ고强奸外예其餘奸事ᄂᆞᆫ男女

ㅣ皆同罪ᄒᆞᄂᆞ니라

ᄉᆞ나희와겨집의욕심이바라나기쉽고ᄆᆡᆨᄌᆞ로
기어려온디라맛당히삼갈배음간ᄒᆞ논일ᄀᆞᄐᆞ
니엽스니져근덧ᄎᆞᆷ더못ᄒᆞ면ᄆᆞᄎᆞᆷ내측량티못
ᄒᆞᆯ러ᄡᅡ디ᄂᆞ니라 法법에和화奸간ᄒᆞ면杖댱八
팔十십ᄒᆞ고남진인ᄂᆞᆫ계집을和화奸간ᄒᆞ면杖
댱九구十십ᄒᆞ고우김질로통간ᄒᆞ면絞교ᄒᆞ고
열두ᄉᆞᆯ로셔아리로어린겨집을通통奸간ᄒᆞ면
ᄯᅩᄒᆞᆫ絞교ᄒᆞ고더려권당으로셔서ᄅᆞ통간ᄒᆞ면
갓가온권당이면쥭을罪죄오먼권당이면ᄌᆞᄌᆞ

로罪죄롤減감ᄒᆞ고強강奸간ᄒᆞ니밧긔그남은
음간ᄒᆞᆫ일은ᄉᆞ나희와겨집이다罪죄ᄒᆞᆫ가지니
라

盜도賊적第뎨十십二이

人之爲盜賊이皆出於飢寒ᄒᆞᄂᆞ니寧丐乞存命이연뎡
勿爲偷竊強奪ᄒᆞ라盜賊之人이臥席終身者ㅣ百無
一人이니라丐乞得食은雖似羞愧ᄒᆞ나終無憯禍ㅣ어니와
攘得財物ᄒᆞ야飽食煖衣라도不多時에囚繫拷掠ᄒᆞ야痛
楚辛苦ᄒᆞ며敗家滅身ᄒᆞᄂᆞ니有何所益이리오法에竊盜
ᄂᆞᆫ杖六十ᄒᆞ고贓多則杖一百絶島爲奴ᄒᆞ고初犯則右

臂刺字ᄒᆞ고再犯則左臂刺字ᄒᆞ야絶島永屬為奴ᄒᆞ고三
犯則絞ᄒᆞ고盜官物則加等ᄒᆞ고強盜ᄂᆞᆫ不分首從皆斬
ᄒᆞᄂᆞ니라

사ᄅᆞᆷ의盜도賊적되오미다주리고칩기로셔나
ᄂᆞ니ᄎᆞᆯ하리비러머거목숨을보존ᄒᆞᆯ디언뎡도
적질ᄒᆞ며우김질로앗기ᄅᆞᆯ말라盜도賊적ᄒᆞ던
사ᄅᆞᆷ이돗긔누어몸을ᄆᆞᄎᆞ리百ᄇᆡᆨ의셔ᄒᆞᆫ사ᄅᆞᆷ
도업ᄂᆞ니라ᄃᆞᆫ니며비러어더먹기ᄂᆞᆫ비록ᄇᆞᆺ그
러온ᄃᆞᆺᄒᆞ나ᄆᆞᄎᆞᆷ내참혹ᄒᆞᆫ화환이업거니와財
지物믈을橫횡得득ᄒᆞ야비블리먹고덥게닙을

ᄯᅥ라도오라디아녀셔가도여미여매마자알슨
허후신ᄌᆞᆷ고ᄒᆞ며집을敗패ᄒᆞ며몸을업시ᄒᆞᄂᆞ
니ᄆᆞᄉᆞᆷ유악ᄒᆞᆯᄲᅢ이시리오法법에ᄀᆞ마니盜도
賊적질ᄒᆞ니ᄂᆞᆫ杖댱六뉵十십ᄒᆞ고쟝믈이만ᄒᆞ
면杖댱一일百ᄇᆡᆨᄒᆞ야絕졀島도의爲위奴노구죵ᄆᆡᆼ의말이라
그ᄃᆞᆫᄒᆞ고初초犯범은올흔ᄑᆞᆯ의刺ᄌᆞ字ᄌᆞ
ᄒᆞ고再ᄌᆡ犯범은왼ᄑᆞᆯ의刺ᄌᆞ字ᄌᆞᄒᆞ야絕졀島
도에영영히뎡속공ᄒᆞ야爲위奴노ᄒᆞ고三삼犯범
이면絞교ᄒᆞ고구잇거ᄉᆞᆯ도적ᄒᆞ면罪죄ᄅᆞᆯᄒᆞᆫ층
을더ᄒᆞ고強강盜도ᄂᆞᆫ슈챵이며조ᄎᆞ니ᄅᆞᆯ분변

티 아니코 다 목 버히ᄂᆞ니라

殺살人인第뎨十십三삼

人命이 至重이가 彼我無間이어ᄂᆞᆯ 暴惡之人이 或曰貪財ᄒᆞ며 或曰讎怨ᄒᆞ야 暮夜無人之中에 潛行殺害ᄒᆞ야 自以爲得計ᄒᆞ나 上天이 臨下孔昭ᄒᆞ시고 鬼神이 在傍이라 早晩發露ᄒᆞ야 必蒙殃孼ᄒᆞᄂᆞ니 戕殺無罪之人ᄒᆞ고 得全平生者ㅣ 自古未有ᄒᆞ니라 法에 謀殺人爲首者ᄂᆞᆫ 斬ᄒᆞ고 下手者ᄂᆞᆫ 絞ᄒᆞ되 因而得財者ᄂᆞᆫ 不分首從皆斬ᄒᆞ고 咀呪殺人者ᄂᆞᆫ 斬ᄒᆞ되 同居人은 雖不知情이라도 流三千里ᄒᆞ고 用毒藥殺人者ᄂᆞᆫ 斬ᄒᆞ고 故用毒蟲[illegible] 咬人

致死者ᄂᆞᆫ斬ᄒᆞ고拷橋毀船과深水泥濘애故欺人令
過渡致死者ᄂᆞᆫ絞ᄒᆞᄂᆞ니라
사ᄅᆞᆷ의목숨이지극히重듕ᄒᆞᆫ디라놈이나내나
다ᄅᆞᆫ디아니ᄒᆞ거ᄂᆞᆯ暴포惡악ᄒᆞᆫ사ᄅᆞᆷ이或혹지
믈貪탐ᄒᆞ믈因인ᄒᆞ며或혹원슈ᄅᆞᆯ因인ᄒᆞ야어
두온밤과사ᄅᆞᆷ업ᄉᆞᆫ곳의ᄀᆞ마니殺살害해ᄒᆞ야
ᄉᆞᄉᆞ로ᄇᆡ잘ᄒᆞᆫ계교라ᄒᆞᄂᆞ니하ᄂᆞᆯ이아래ᄅᆞᆯ구
버보시기ᄅᆞᆯᄀᆞ장ᄇᆞᆰ게ᄒᆞ시고鬼귀神신이져ᄃᆡ
인ᄂᆞᆫ디라무조晩만의들려나반ᄃᆞ시殃앙孽얼
을닙ᄂᆞ니罪죄업ᄉᆞᆫ사ᄅᆞᆷ을죽여주기고平평生

셩을保보全젼홀者쟈ㅣ 네 보티잇디아니ᄒᆞ니

라 法법에사ᄅᆞᆷ을ᄢᅵᄒᆞ야주기나간모슈ᄒᆞ니ᄂᆞᆫ

斬참ᄒᆞ고손더호니ᄂᆞᆫ絞교호되因인ᄒᆞ야財ᄌᆡ

믈을가진者쟈ᄂᆞᆫ모슈와조ᄎᆞ니ᄅᆞᆯ분간티말고

다斬참ᄒᆞ고방졍ᄒᆞ야사ᄅᆞᆷ을주기나ᄂᆞᆫ斬참호

되ᄒᆞᆫ디사던사ᄅᆞᆷ은비록情졍을어더못ᄒᆞ야실

ᄒᆡ라도三삼千쳔里니에귀향보내고毒독ᄒᆞᆫ藥

약으로ᄡᅥ사ᄅᆞᆷ을주기나ᄂᆞᆫ斬참ᄒᆞ고짐ᄌᆞᆺ毒독

ᄒᆞᆫ버러지와비얌으로ᄡᅥ사ᄅᆞᆷ을믈려죽게ᄒᆞ니

ᄂᆞᆫ斬참ᄒᆞ고셔근ᄃᆞ리와ᄒᆞ야딘ᄇᆡ과기픈믈과

쉬ᄂᆞᆫ作히짐ᄌᆞᆺ사ᄅᆞᆷ을소겨ᄒᆞ여곰다나며권ᄃᆡ
게ᄒᆞ야죽거ᄒᆞ니ᄂᆞᆫ綾ᄒᆞᄂᆞ니라

附 古고靈령陳딘先션生싱仙션居거勸권諭유文문

古고靈령陳딘先션生성일홈은襄양이니宋송적어딘사ᄅᆞᆷ이니仙션居거원ᄒᆞ야실제뵈셩알외ᄂᆞᆫ글이라

爲吾民者ᄂᆞᆫ父義能正其家母慈ᄒᆞ며兄友能養其弟弟恭ᄒᆞ며能敬其兄子孝ᄒᆞ며能事父母夫婦ㅣ有恩ᄒᆞ며貧窮相守爲恩若妻不養夫夫喪改嫁皆是無恩也男女ㅣ有別ᄒᆞ며男有婦女有夫分別不亂子弟ㅣ有學ᄒᆞ며能知禮義廉恥鄕閭ㅣ有禮ᄒᆞ며歲時寒暄皆以恩義往來燕飮序老少坐立拜起貧窮患難애親戚이相救ᄒᆞ며貧借財穀婚姻死喪에鄰保ㅣ相助ᄒᆞ며無惰農業ᄒᆞ며無作盜賊ᄒᆞ며無學賭博ᄒᆞ며無好爭訟ᄒᆞ며無以惡陵善ᄒᆞ며無以富呑貧ᄒᆞ며行者ㅣ讓路ᄒᆞ며

少避長賤避貴輕避重去避來耕者ㅣ讓畔ᄒᆞ며地有畔不相爭奪斑白者ㅣ
不負戴於道路ᄒᆞ면子弟負重執役不令老者擔警則爲禮義之俗矣
리라

버ᄇᆡᆨ셩되연ᄂᆞᆫ이ᄂᆞᆫ아비ᄂᆞᆫ올히ᄒᆞ고어미ᄂᆞᆫ어
엿비너기며兄형은ᄉᆞ랑ᄒᆞ고아ᄋᆞᆫ공경ᄒᆞ며ᄌᆞ
식은효도ᄒᆞ며남진과겨집이은혜이시며ᄉᆞ나
희와갓나희ᄀᆞᆯᄒᆡ요미이시며子ᄌᆞ弟뎨ᄒᆞᆨ문홈
이이시며ᄀᆞ올히녜법이이시며가난ᄒᆞ며어려
온일에권당이서르救구ᄒᆞ며婚혼姻인이겨샤
ᄉᆞ애이우지서르도으며녀름지이로게을이말

며盜도賊적을ᄒᆞ디말며博박바독가라쟝으로ᄡᅥ
기ᄅᆞᆯ뻐호디말며ᄃᆞ토와숑ᄉᆞᄅᆞᆯ즐기디말며사
ᄋᆞ나옴으로ᄡᅥ어딘이ᄅᆞᆯ업슈이너기디말며가
음여롬으로ᄡᅥ가난ᄒᆞᆫ이ᄅᆞᆯ믜호디말며길테리
길혼ᄉᆞ양ᄒᆞ며밧갈리ᄀᆞ올ᄉᆞ양ᄒᆞ며반만셰니
길히지며이디아니ᄒᆞ면곳禮톄義의녯풍쇽이
되리라

西셔山산眞진先션生ᄉᆡᆼ潭담州쥬諭유俗쇽
文문 西셔山산眞진先션生ᄉᆡᆼ얼홈은德덕秀슈 쥬ㅣ오西셔山산은別별號호ㅣ니宋송
덕어딘사ᄅᆞᆷ이니潭담州쥬ㅣ 원가셔빅셩을알왼글이라

古者애教民을必以孝悌로為本ᄒᆞ며其制刑을亦以
不孝不悌로為先ᄒᆞ니蓋人之為人이異乎禽獸者ᄂᆞᆫ
以其有父子之恩長幼之義也ㅣ니詩云父兮生我ᄒᆞ시
고母兮鞠我ᄒᆞ샷다ᄒᆞ고繼之曰欲報之德인댄昊天罔極이라
ᄒᆞ니此ᄂᆞᆫ言父母之恩이與天同大ᄒᆞ니為人子者ㅣ雖
竭其力이나未足以報也ㅣ어ᄂᆞᆯ今乃有親在而別籍異
財ᄒᆞ며親老而供養多闕ᄒᆞ며親疾而救療弗力ᄒᆞ며親沒
而安厝弗時ᄒᆞ야不思此身이從何而有ᄒᆞ니罔極之報
ㅣ當如是乎아至於兄弟ᄂᆞᆫ天倫이니古人이謂之手
足이니라言其本同一體也ㅣ어ᄂᆞᆯ今乃有以唇舌細故

而致爭ᄒᆞ며 錐刀小利而興訟ᄒᆞ야 長不恤幼ᄒᆞ며 卑或凌尊ᄒᆞ니 同氣之親이 何忍爲此ㅣ리오 自今民間애 有孝行純至友愛著聞者ㅣ어든 采訪得實ᄒᆞ야 當優加旌賞ᄒᆞ야 以爲風俗之勸이니 或其間에 有昧於禮法之人이 爲不孝不悌之行이어든 鄉里父老ㅣ 曲加誨諭ᄒᆞ야 令其悛改ᄒᆞ라 昔애 後漢陳元이 爲母所訟이어늘 亭長仇香이 親到其家ᄒᆞ야 敎以人倫大義ᄒᆞ니 遂爲孝子ᄒᆞ고 北史에 淸河之民이 有兄弟爭財者ㅣ어늘 郡守蘇瓊이 告以難得者ᄂᆞᆫ 兄弟오 易得者ᄂᆞᆫ 田宅이라ᄒᆞᆫ대 遂感悟息訟ᄒᆞ야 同居如初ᄒᆞ니 敗常亂俗之民은 王法所加ㅣ라

將有不容己者니一陷刑戮이면終身不齒ᄒᆞᄂᆞ니雖悔
ᄂᆞ들何及이리오爾民은其思之ᄒᆞ야毋忽ᄒᆞ라
ᄇᆡᄇᆡᆨ셩ᄀᆞᄅᆞ치기ᄅᆞᆯ반ᄃᆞ시효도와공슌ᄒᆞᆷ기로
ᄲᅧ근본을삼으며그형벌짓기도ᄯᅩᄒᆞᆫ효도아니
ᄒᆞ며공슌아니ᄒᆞᄂᆞ니ᄅᆞᆯᄲᅡ웃듬을삼ᄂᆞ니사ᄅᆞᆷ
의사ᄅᆞᆷ되오미즘ᄉᆡᆼ의게셔다ᄅᆞ기ᄂᆞᆫ그父부子
ᄌᆞ의恩은과열운이며어린의義의이심으로ᄲᅥ
니詩시예닐오ᄃᆡ모시란글이라父부ㅣ날을나ᄒᆞ시고
母모ㅣ날을기ᄅᆞ샷다ᄒᆞ고니어ᄀᆞᆯ오ᄃᆡ德덕으
로갑고져ᄒᆞᆯ션ᄃᆡ하ᄂᆞᆯ이ᄀᆞ이업스샷다ᄒᆞ니이

논父부母모은덕기하ᄂᆞᆯ로더부러크기ᄀᆞᆺ트믈
닐ᄋᆞ미니人인子ᄌᆞㅣ되엿ᄂᆞᆫ者자ㅣ비록그힘
을다ᄒᆞ나죡히ᄡᅥ갑디못ᄒᆞ믈ᄡᅥ시어ᄂᆞᆯ이졔어버
이겨실제가구ᄅᆞᆯᄲᅡ로ᄒᆞ야지믈을달리ᄒᆞ며어
버이ᄂᆞᆯ그심애供공養양이궐벅ᄒᆞ미만ᄒᆞ며어
버이병드ᄅᆞ심애구의ᄒᆞ야고티기ᄅᆞᆯ힘ᄡᅳ디아
니ᄒᆞ며어버이주그심애편안이뭇기ᄅᆞᆯ졔ᄇᆡ로
아니ᄒᆞ리이셔이몸이어ᄃᆡᄅᆞᆯ조차잇ᄂᆞᆫ줄을싱
각디아니ᄒᆞᄂᆞ니罔망極극ᄒᆞᆫ은덕갑긔ᄅᆞᆯ맛당이
이러ᄐᆞ시ᄒᆞᆯ라兄형弟뎨ᄂᆞᆫ天텬倫륜이니 하갈 삼관

거뎟시뎟라ᄒᆞᆫ벗사ᄅᆞᆷ이닐오ᄃᆡ手슈足족이라ᄒᆞ니그
본ᄃᆡ一일體톄과ᄒᆞᆫ가지라날옴이어놀이졔입
슈월이며형의죠교만연고로배ᄃᆞ토기예니르
며송ᄉᆞᆺ과괄ᄉᆞᆺ만ᄒᆞᆫ쟈근니로송ᄉᆞ틀니ᄅᆞ혀리
이셔얼은은어린이ᄅᆞᆯ어엿비너기디아니ᄒᆞ며
ᄂᆞ즈니논或혹노프니ᄅᆞᆯ업슈이너기니동셩의
친홈이어이ᄎᆞ마이러ᄐᆞ시ᄒᆞ리오이졔로브터
民민間간의孝효行ᄒᆡᆼ이ᄀᆞ장지극ᄒᆞ며동셩ᄉᆞ
랑ᄒᆞ기나타나들리리잇거든듯보와실상을어
디맛당이졍표ᄒᆞ여賞샹ᄒᆞ믈크게디어배風풍

俗쇽의勸권홈을삼으시니或혹그ᄉᆞ이에禮례
비와法법을모로ᄂᆞᆫ사ᄅᆞᆷ이효도아니며공슌아
닌ᄒᆡᆼ신을ᄂᆞ리잇거든ᄆᆞ올원들이극진히ᄀᆞ
르쳐알외여ᄒᆞ여곰다ᄉᆞ라고티게ᄒᆞ라ᄒᆞ시니後후
漢한나라陳딘元원이제어믜할린배되여ᄂᆞᆯ亭뎡
長댱이관원이라仇구香향이친히그집의니르러人
인倫륜大대義의로ᄡᅥ사ᄅᆞᆷ이되ᄂᆞᆫ도리라ᄀᆞᄅᆞ치니드듸
여孝효子ᄌᆞㅣ되고ᄂᆞᆫ부ᄉᆞᄉᆞ에請쳥ᄒᆞ야ᄇᆡ셩
이兄형弟뎨지몰ᄂᆞ토리잇거ᄂᆞᆯ郡군守슈蘇소
瓊경이告고ᄒᆞ되엇기어려온거슨兄형弟뎨오

엇기쉬온거손밧과집이라ᄒᆞᆫ대드듸여곰동ᄒᆞᆫ
여쳐도라숑ᄉᆞᄅᆞᆯ그치고ᄒᆞᆫ가지로살기ᄅᆞᆯ귀엄
과ᄀᆞ티ᄒᆞ니덧덧ᄒᆞᆫ거ᄉᆞᆯ허러ᄇᆞ리며풍쇽을어
즈러이ᄂᆞᆫᄇᆡᆨ셩은나라법으로더ᄅᆞᆯ배타쟝ᄎᆞᆺ과
디못ᄒᆞ미이실쎄시니ᄒᆞᆫ번刑형戮륙에ᄲᅡ디면
몸이ᄆᆞᆺ도록인ᄉᆞ에참예티못ᄒᆞ리니비록뉘우
츤ᄃᆞᆯ어이미ᄎᆞ리오더희ᄇᆡᆨ셩들은그싱각ᄒᆞ야
경홀이너기디말라
古人이於宗族之恩에百世不絶ᄒᆞ니蓋服屬이雖遠
ᄒᆞ나本同祖宗ᄒᆞ야血脈相通ᄒᆞ니豈容間隔이리오至於鄰

里鄕黨은雖比宗族爲踈ᄒᆞ나然其有無相資ᄒᆞ며緩急
相倚ᄒᆞ며患難相救ᄒᆞ며疾病相扶ᄒᆞᄂᆞ니情義所關이亦
爲甚重ᄒᆞ거ᄂᆞᆯ今人이於此二者에徃徃視以爲輕ᄒᆞ야
小有忿爭에輒相陵犯ᄒᆞ야詞𧰼一起에便爲敵讐ᄒᆞᄂᆞ
니有一于斯ㅣ라도皆非義事ㅣ라昔에江州陳氏ㅣ累
世同居ᄒᆞ야聚族至七百餘口ᄒᆞ니前代常加旌表ᄒᆞ야至
今稱爲義門ᄒᆞ고近者애吉州孫進士ㅣ以惠施一鄕
으로諸司ㅣ列奏ᄒᆞ야蒙恩特免丈解ᄒᆞ니士夫以爲美談
ᄒᆞᄂᆞ니今請逐處老成賢德之士ᄂᆞᆫ交相勸率ᄒᆞ야崇宗
族之愛ᄒᆞ며厚鄰里之歡ᄒᆞ야時節徃來ᄒᆞ야恩義浹洽ᄒᆞ며

小小乖忤를務相涵容이오不必輕落訟端ᄒᆞ야以致結成怨隙이니若能和協親族ᄒᆞ며賙濟里閭ᄒᆞ야爲衆論所推ᄒᆞ면亦當特加褒異어니와如其不體教訓ᄒᆞ야妄起訟爭이면懲一戒百을所不容已니爾民은其勉之ᄒᆞ야毋忽ᄒᆞ라

녯사ᄅᆞᆷ이족친ᄉᆞ이은뎡에百ᄇᆡᆨ世셰라도긋디아니ᄒᆞ니服복이미촌쉬비록머러도본ᄃᆡ조상이ᄒᆞᆫ가지라血혈脉ᄆᆡᆨ이서르通통ᄒᆞ니엇디間간隔격ᄒᆞ기ᄅᆞᆯ용납ᄒᆞ리오이오지며모올혼비록권당의게비기면소ᄒᆞ나그러나그이시며업

ᄂᆞᆫ거ᄉᆞᆯ서로ᄌᆞ뢰ᄒᆞ며緩완ᄒᆞ며急급ᄒᆞᆫ되이셔
ᄅᆞ미드며患환難난에서로救구ᄒᆞ며疾질病병
에서로붓드ᄂᆞ니情졍義의예걸린배任ᄒᆞᆷ이장
重듕ᄒᆞ거ᄂᆞᆯ이제사ᄅᆞᆷ이이두가지일에잇다감
보기ᄅᆞᆯ가비야이ᄒᆞ야감ᄯᅡ노ᄒᆞ야ᄃᆞ토미이순
매ᄆᆞᆫ득서로업슈이녀겨침범ᄒᆞ야ᄒᆞ라춍ᄉᆞᄒᆞ
기ᄅᆞᆯᄒᆞᆫ번니르혀매ᄆᆞᆫ득텩국이되며원슈되ᄂᆞ니
이에ᄒᆞ나히이셔도다아ᄅᆞᆷ다온일이아니라뎌
江강州쥬ㅣ(고올일흠이라)陳딘氏시여러ᄃᆡᄅᆞᆯᄒᆞᆫᄃᆡ사
라권당모도기ᄅᆞᆫ칠百빅餘여口구에니ᄅᆞ니

前젼代ᄃᆡ에뎌뎌이旌졍表표ᄒᆞ믈더ᄒᆞ야이제
니르히일ᄏᆞᆯ라올ᄒᆞ가문이라ᄒᆞ고요ᄉᆞ이吉길
쌔쥬ㅣ 고올일홈이라 孫손進진士ᄉᆞㅣ一일鄕향에은
혜ᄅᆞᆯ베픔으로ᄡᅥ모든마ᄋᆞᆯ돌이알외오니국은
을닙ᄉᆞ와각별이文문解ᄒᆡ로ᄅᆞᆯ免면케ᄒᆞ시니문파
라ᄒᆞ시ᄉᆞ태위ᄲᅧ아ᄅᆞᆷ다온말을삼ᄂᆞ니이제쳥권
ᄃᆡ곳마다열군에어딘틱인노사ᄅᆞᆷ이이르러권면
ᄒᆞ여챵솔ᄒᆞ여겨레ᄉᆞ랑ᄒᆞ기ᄅᆞᆯ숭샹ᄒᆞ여ᄆᆞ을
혜즐거오믈둣거이ᄒᆞ여時시節졀로往왕來ᄅᆡ
ᄒᆞ야은혜와졍의흐웍ᄒᆞ게ᄒᆞ며丕비고만어리롭

논일란힘ᄡᅥ서ᄅᆞ합륙ᄒᆞ며용납ᄒᆞ야반ᄃᆞ시가
비야이訟송端단을여러내여ᄡᅧ혐원이며듬이
미자일기예닐위더마롤ᄯᅢ니만일능히권당을
화동ᄒᆞ며ᄆᆞ올올구졔ᄒᆞ야모든의논의츄듕ᄒᆞ
논배되면ᄯᅩᄒᆞᆫ맛당이각별이포쟝ᄒᆞ여갈리ᄒᆞ
몰더ᄒᆞ려너와만일그ᄀᆞᄅᆞ친말을톄렴티아니
ᄒᆞ야숑ᄉᆞᄒᆞ야ᄃᆞ토기롤망텽도이너ᄅᆞ허면ᄒᆞᆫ
사ᄅᆞᆷ을당티ᄒᆞ여ᄇᆡᆨ사ᄅᆞᆷ을경계ᄒᆞ기롤마더아
닐ᄢᅢ너너희ᄇᆡᆨ셩들이그힘ᄡᅥᄒᆞ야뎡홀이너기
디말라

泉쳔州쥬勸권諭유文문 眞진西셔山산이 泉쳔州쥬ㅣ원가셔 빅
셩을알외 글이라
凡爲人子ㅣ孝敬是先이니 其次ᄂᆞᆫ 友愛ᄒᆞ야 協和兄弟
라 人非父母ㅣ면 豈有此身이리오 父母生兒ᄒᆞ야 多少艱
辛ᄒᆞ시니 姙娠將免에 九死一生ᄒᆞ시며 乳哺三年에 飮
母膏血ᄒᆞᄂᆞ니 携持保抱에 日望長成ᄒᆞ야 如惜金珠ᄒᆞ시
며 如護性命ᄒᆞ시니 慈烏ㅣ反哺ᄒᆞ야 猶知報恩ᄒᆞᄂᆞ니 人
而不孝면 烏雀不若이라 兄弟之愛ᄂᆞᆫ 同氣連枝니 古
來取喩에 名爲手足ᄒᆞ니 人無兄弟면 如無四肢라 痛
癢相關ᄒᆞ야 實同一體니 長當撫幼ᄒᆞ며 弟當敬兄ᄒᆞ야 或

値急難인댄 尤須救助ㅣ니라 其次ᄂᆞᆫ 族屬이니 雖有親疎ㅣ나 論其源流ㅣ면 皆是骨肉이니 譬如大木이 枝葉分披ᄒᆞ나 本同一根ᄒᆞ야 氣脉未遠ᄒᆞ니 豈宜相視를 便若路人이리오 其次ᄂᆞᆫ 鄕鄰이니 情義亦重이라 患難相扶ᄒᆞ며 疾病相救ᄒᆞ야 恩義往來를 亦不可闕이니 以上四事ᄂᆞᆫ 人道大段이라 凡爾良民이 首當加勉이니 家家孝友ᄒᆞ며 人人雍和ᄒᆞ야 息事省爭ᄒᆞ며 安分循理ᄒᆞ야 得已且已오 莫妄興詞ᄒᆞ라 一到訟庭에 終身仇敵이라 更相報復ᄒᆞ야 無有休期니 壞産破家ㅣ 多由於此ㅣ니 語言喧競ㅣ 或不能無ㅣ라 鄰里之間에 急宜勸止오 莫令交手ᄒᆞ야

致有鬪傷ᄒᆞ라彼中汝拳이면汝受官棒이니本因小忿ᄒᆞ야
延結深讐ㅣ何似始初에便從忍耐리오飲酒無節이면
少不生災오賭博不戒면多至為盜ᄒᆞᄂᆞ니游手浮浪
이면必困窮이오勤謹服業이면終是得力이라니違法抱
刑이最不可作이니舊來有過를各許自新ᄒᆞ노니教而
不從인댄刑斯無赦ㅣ오有過能改면即是善良이니耆艾
老成은宜推此意ᄒᆞ야誨爾子弟와及其鄉人ᄒᆞ야有違
此言이어든衆宜誚責ᄒᆞ고以善教人이면人必感動ᄒᆞ야去
薄從厚ᄒᆞ며弭災召和ᄒᆞ리니其始自今으로永為樂國ᄒᆞ리
라

므롯人인子ᄌ되엿ᄂ니효도와공경을이믄져
ᄒᆞᆯᄭᅥ니그버금은友우愛이ᄒ야兄형弟뎨화동
ᄒᆞᆯᄭᅥ라사ᄅᆞᆷ이父부母모아니시면엇디이몸이
이시리오父부母모ㅣᄌ식을나ᄒ샤뎌얼미슈
골리ᄒ시니비야장ᄎᆞ나ᄒ실제아홉번죽고ᄒ
번사ᄅᆞ시며三삼年년을졋머기시매어믜기름
과피ᄅᆞᆯ먹ᄂ니잇글며븟들며간슈ᄒ며푸므시
매날로조라기ᄅᆞᆯᄇ라샤金금과구슬을앗기ᄃᆺ
ᄒ시며내목숨을보호ᄒᆞᄃᆺᄒ시여가마괴도어
미ᄅᆞᆯ도로머겨오히려은혜갑플[illegible]을아ᄂ니사

ᄅᆞᆷ이오不블孝효홈ᄒᆞ면가마괴만곳디못ᄒᆞᆫ디라
兄형弟뎨의ᄉᆞ랑호오미긔운이ᄒᆞᆫ가지오가지
連련홈이니톄로오모로가져너ᄅᆞ매일홈을手
슈足족이라ᄒᆞ니사ᄅᆞᆷ이兄형弟뎨업스면四ᄉᆞ
肢지업스니와ᄀᆞᄐᆞ니얼프며ᄀᆞ라오미서르관
계ᄒᆞ야진실로一일體톄과ᄒᆞᆫ가지니어론이엇
당이어리니ᄅᆞᆯᄉᆞ랑ᄒᆞ며아이맛당이兄형을공
경ᄒᆞ야或혹급ᄒᆞ며어렵기를만난뎐더고나모
로미구ᄒᆞ야도을ᄯᅵ니라그버금은권당이니비
록親친ᄒᆞ며疏소ᄒᆞᆫ네이시나그근원과뉴패를

의논컨댄다이骨골肉육이나비컨댄큰남기가
지와닙히ᄂᆞᆫ회여허여디시나본ᄃᆡᄒᆞᆫ불히ᄅᆞᆯᄒᆞᆫ
가지로ᄒᆞ야긔운과혈ᄆᆡᆨ이머디아니ᄒᆞ니엇더
맛당이서ᄅᆞ보기ᄅᆞᆯ믄득길히사ᄅᆞᆷᄀᆞ티ᄒᆞ리오
그버픔은ᄆᆞᄋᆞᆯ히니情졍義의任重듕ᄒᆞᆫ더라患
환難난의서ᄅᆞ븟들며疾질病병의서ᄅᆞ救구ᄒᆞ
야恩은義의로往왕來ᄂᆡᄒᆞ기ᄅᆞᆯ任ᄒᆞᆫ이가히闕
궐티못ᄒᆞᆯ쎼시니이웃네일은사ᄅᆞᆷ의도리에큰
거시라므릇ᄇᆡ희어ᄃᆞᆫᄇᆡᆨ셩이웃듬으로맛당이
터힘ᄡᅳᆯ쎼시니집마다孝효友우ᄒᆞ며사ᄅᆞᆷ마다

화동ᄒᆞ야일을으로ᄒᆞ고도토기ᄅᆞᆯ더러ᄇᆞᆫ을편안
이너기며도라ᄅᆞᆯ조치시러곰말ᄉᆡ신면또ᄒᆞᆫ말
고망령도이송ᄉᆞᄅᆞᆯ니ᄅᆞ혀ᄃᆞ말라ᄒᆞᆫ번訟송庭
뎡의니르매몸이ᄆᆞᄎᆞ도록원슈되ᄂᆞᆫ디라서ᄅᆞ구
바報보復복ᄒᆞ야그칠긔약이업슬거시니셰간
을믈허ᄇᆞ리고집을ᄒᆞ야ᄇᆞ리기만히일로셔말
ᄆᆞ암ᄂᆞ니말로ᄃᆞᆯ러여도토기ᄅᆞᆯ或혹업디못ᄒᆞᆯ
디라도몸을ᄉᆞ이예ᄲᆞᆯ리망당이뎐ᄒᆞ며그치게
ᄒᆞ고희어곰손을버거사화샹홈아잇기예니르
게말라티비주어피ᄅᆞᆯ마조면비구읫매ᄅᆞᆯ마졸

게시니본ᄃᆡ자근노를인ᄒᆞ야절근이기ᄅᆞᆫ원슈
로ᄆᆡᄌᆞ미엇디처음의문득ᄎᆞᆷ음만ᄀᆞᄐᆞ리오술
먹기를無무節졀이ᄒᆞ면지해나ᄃᆡ아니리젹고
愽박바독쟝긔라으로티 二기를경계티아니면도적
되기에니ᄅᆞ리만ᄂᆞ니손을놀와浮부浪낭ᄒᆞ면
오라매반ᄃᆞ시困곤窮궁ᄒᆞ고브즈러니ᄒᆞ며삼
가소업을일삼으면ᄆᆞᄎᆞᆷ내힘을언ᄂᆞ니라法법
을어긔롬고형벌을犯범홈이ᄀᆞ장ᄒᆞ염즉ᄃᆡ아
니니텨잇던허물을각각스스로고티믈許허ᄒᆞ
노니ᄀᆞᄅᆞ쳐도좃디아닐션댄형벌이이에샤흠

이업슈刷쇄오허믈이이셔도능히고티션면곳
이어디로미니늘근어론들히맛당이이뜻을밀
워여비子ᄌᆞ弟톄파믿ᄆᆞ올사ᄅᆞᆷ을ᄀᆞᄅᆞ쳐이말
의어괴ᄂᆞ니잇거든모다맛당이슈어려ᄉᆞ지즈
라어딜기로벼사ᄅᆞᆷ을ᄀᆞᄅᆞ치면사ᄅᆞᆷ이반ᄃᆞ시
感감動동ᄒᆞ야薄박ᄒᆞ믈ᄇᆞ리고厚후ᄒᆞ믈조ᄎᆞ
여지변이프러디게ᄒᆞ고화긔를ᄇᆞ를셔시니그
비로소일로브터기리즐거온나라이되리라

泉쳔州쥬勸권孝효文문 眞진西셔山산이泉쳔州쥬ㅣ셔빅뎐ᄒᆞᆫ
孝효도勸권ᄒᆞᆫ글어라

昔者애聖人이作孝經一書ᄒᆞ샤教人以事親之道ᄒᆞ샤
ᄃᆡ其紀孝行章에曰孝子之事親也에居則致其敬ᄒᆞ며
養則致其樂ᄒᆞ며病則致其憂ᄒᆞ며喪則致其哀ᄒᆞ며祭
則致其嚴이니五者備矣然後에能事親이라ᄒᆞ시니孝之
始終이無出於此ㅣ니라所謂居則致其敬者ᄂᆞᆫ言子
之事親애常須恭敬ᄒᆞ야不得慢易ㅣ니蓋父母者ᄂᆞᆫ子
之天地也ㅣ시니爲人而慢天地면必有雷霆之誅ᄒᆞ고
爲子而慢父母면必有幽明之譴ᄒᆞᄂᆞ니昔애太守侍
郎王公이見人禮塔ᄒᆞ고呼而告之曰汝有在家佛ᄒᆞ니
何不供養ᄒᆞᄂᆞ고ᄒᆞ니蓋謂人能奉親이면即是奉佛이니若不

能奉親이면 雖焚香百拜라도 佛亦不佑ᄒᆞᄂᆞ니 此道甚明이라

韋無疑焉이다 所謂養則致其樂者ᄂᆞᆫ 言子之養親

이 當有以順適其意ᄒᆞ야 使之喜樂也ㅣ니 大凡年老之

人이 心常歡悅則疾病이 少ㅣ오 中懷戚戚이면 易損天

年이니 昔에 老萊子ㅣ 雙親이 年高ㅣ시어ᄂᆞᆯ 常着彩衣ᄒᆞ고

爲兒童戲ᄒᆞ니 正以此也ㅣ니라 今貧下之民이 苟以錦

衣珍膳ᄒᆞ야 以奉其親이어니와 但能隨力所有而盡其誠

心ᄒᆞ야 父母ㅣ 未食이어시든 子不先嘗ᄒᆞ며 父母ㅣ 衣寒이어

시든 子不獨煖ᄒᆞ며 父母ㅣ 有怒ㅣ어시든 和顏聞解ᄒᆞ며 父母

ㅣ 有命이어시든 竭力奉承則尊者之心이 快樂ᄒᆞ야

内ㅣ盡然如春矣라所謂病則致其憂者ᄂᆞᆫ
言父母ㅣ有疾이어시든當極其憂慮也ㅣ니昔人이有母
病三年에夜不解帶者ㅣ니親年이既高면不能無疾이
니人子ㅣ當躬自侍奉ᄒᆞ야藥必先嘗ᄒᆞ며若有名醫어든
不惜號泣懇告ᄒᆞ야以求治療之法이니不必割指刲股
而後에爲孝ㅣ니라至於喪祭二事도皆當以盡誠으로
爲先이니夫送終之禮ᄂᆞᆫ稱家有無ㅣ니昔人所爲必誠
必信者ᄂᆞᆫ惟棺槨衣衾이至爲切要ㅣ라其它繁文外
餙은皆不必爲ㅣ니至於佛家追薦之說은固荒誕難
知어니와然이나昔賢이有言호ᄃᆡ天堂이無則已어니와有

則善人ㅣ登이오地獄이無則已어니와有則惡人이入
이라ᄒᆞ니苟明此理則諂奉僧尼ᄒᆞ며廣修齋供이其爲無
益을昭然可知라又聞鄕俗이相承ᄒᆞ야親賓送葬애
或爲烹宰羊豕ᄒᆞ며酣醟杯觴이라ᄒᆞ니當悲而樂이尤爲
非禮라經에曰孝悌之至ㅣ通於神明이라ᄒᆞ니天下萬
善에孝爲之本이니若能勤行孝道ᄒᆞ면非惟鄕人이重
之며官司ㅣ敬之라天地鬼神도亦將佑之어니와如
其悖逆不孝ㅣ면非惟鄕人이賤之며官司ㅣ治之라
天地鬼神도亦將殛之리니今請鄕黨鄰里之間에更
相勸勉ᄒᆞ야其有不識文義者ㅣ어는老成賢德之士ㅣ

當與解說ᄒᆞ야使之通曉ᄒᆞ면庶幾人人이興起ᄒᆞ며家家
ㅣ慕效ᄒᆞ야漸還淳古之俗ᄒᆞ리니顧不美歟아
뎨聖셩人인이孝효經경호칙을ᄆᆡᆫ드르샤사ᄅᆞᆷ
을어버이셤기ᄂᆞᆫ도리로ᄡᅥᄀᆞᄅᆞ치샤ᄃᆡ그孝효
行ᄒᆡᆼ을긔록ᄒᆞᆫ글에ᄀᆞᆯᄋᆞ샤ᄃᆡ孝효子ᄌᆞ의어버
이셤교매거실제ᄂᆞᆫ그공경을닐위며봉양홈애
ᄂᆞᆫ그즐김을닐위며병애ᄂᆞᆫ그근심을닐위며상
ᄉᆞ애ᄂᆞᆫ그슬허홈을닐위며祭졔에ᄂᆞᆫ그엄슉홈
을닐윌디니다ᄉᆞᆺ거시ᄀᆞᆺ촌후에야能능히어버
이ᄅᆞᆯ셤김이라ᄒᆞ시니효도의쳐엄이며나죵이

아에셔반ᄃᆞ시업ᄉᆞ니라닐오ᄂᆞᆫ바가실제그공경
을닐위다홈은닐온ᄌᆞ식의어버이셤굠을샹해
모롬이恭공敬경ᄒᆞ야시러곰만홀ᄃᆡ못홀쉬시
니父부母모ᄂᆞᆫᄌᆞ식의天텬地디니사ᄅᆞᆷ이되야
天텬理리ᄅᆞᆯ업슈이너기면반ᄃᆞ시우레의주굠
이잇고ᄌᆞ식이되야어버이ᄅᆞᆯ업슈이너기면반
ᄃᆞ시더하와인간의죄이시리니태太守슈인
侍시郞낭王왕公공이사ᄅᆞᆷ이塔탑에절홈을됴
코블러ᄉᆞᆷ교ᄒᆞ야ᄀᆞᆯ오ᄃᆡ비겹의인ᄂᆞᆫ부톄인ᄂᆞ
니엇디공양아니ᄒᆞᄂᆞ뇨ᄒᆞ니닐올사ᄅᆞᆷ이餘ᄂᆞᆫ

히여ᄡᅥ 이로 봉양ᄒᆞ면 곳 이부터로 봉양ᄒᆞ미니
만일에 能능히 어버이로 봉양티 못ᄒᆞ면 ᄇᆡ록 ᄌᆞᆼ
향을 ᄢᅱ워 ᄇᆡᆨ번 절을 ᄒᆞ야 도ᄅᆞ ᄆᆡ 侄ᄒᆞᆫ 듀 뎨야블
쌔시니 이 도리 ᄇᆞᆯ고미 심ᄒᆞᆫ디라 ᄒᆡᆼ혀 도의 심티
말ᄋᆡ어다 ᄇᆞᆯ온바 봉양홈애 ᄂᆞᆫ 그 즐김을 닐위다
홈은 닐온 ᄌᆞ식이 어버이 봉양ᄒᆞ기를 맛당히 써
그 ᄠᅳᆮ을 順슌히 맛게 홈미 이셔 히여 곰 즐기게 홈이
니 大대凡범 혼ㄱ니 만ᄒᆞᆫ 사ᄅᆞᆷ이 ᄆᆞ음이 샹해 즐
거오면 병이 ᄡᅡᆫ드시 적고 ᄆᆞ옴이 서그프면 天텬
年년을 감손ᄒᆞ기 쉬오니 네 ᄌᆞ老로養냥 궁ᄌᆞㅣ

호ᄌᆞ로일홈난사ᄅᆞᆷ이라두어버이나히만커시ᄂᆞᆫ샹혜치셕
옷슬닙어오ᄉᆡᆨ으로아롱지게ᄒᆞᆫ옷시라야희롱을ᄒᆞ니졍히
일로ᄡᅢ니라이지간난ᄒᆞᆫᄇᆡᆨ셩이진실노됴흔옷
과만난ᄇᆞᆫ찬으로ᄡᅥ그어버이를봉양ᄒᆞᆯᄉᆡ시염
ᄌᆞ려너와다만能능히힘의인ᄂᆞᆫ배를조차그졉
셩에ᄆᆞᄋᆞᆷ을다ᄒᆞ야父부母모ㅣ음식못ᄒᆞ여겨
차거든ᄌᆞ식이몬져먹디아니ᄒᆞ며父부母모ㅣ
치위ᄒᆞ시거든ᄌᆞ식이혼자텨게아니ᄒᆞ며父부
母모ㅣ怒노ᄒᆞ시미겨시거든ᄂᆞᆺ빗ᄎᆞᆯ和화히ᄒᆞ
야미셜ᄒᆞ야플며父부母모ㅣ시기심이잇거시

드힘을다ᄒᆞ야밧드러ᄒᆞ면얼운의ᄆᆞᄋᆞᆷ이快쾌
樂낙ᄒᆞ야도장문안히화거봄ᄀᆞᄐᆞ리라날오ᄃᆡ
병에ᄂᆞᆫ그근심을닐위다홈은닐온父부母모ㅣ
병이겨시거든맛당이그근심과셤터를극진히
ᄒᆞ다홈이니티ᄉᆞ사ᄅᆞᆷ이어믜병이三삼年년에
밤의ᄯᅴ롤그르디아니ᄒᆞ니이시니어버의나히임
의노프시면能능히병이업디못ᄒᆞ실기시니人
인子ᄌᆞㅣ맛당이몸소스스로뫼셔藥약을반ᄃᆞ
시몬져맛보며만일유명ᄒᆞᆫ의원이잇거든울표
고절이니르믈앗기디아니ᄒᆞ야써治티療료ᄒᆞᆯ

法법을쳥ᄒᆞᆯ셔니반ᄃᆞ시쓴ᄉᆞ락을버히며다리
를달은후에孝효ㅣ됨이아니라상ᄉᆞ와졔두
일에너ᄅᆞ러도다맛당이졍셩을다ᄒᆞᆫ모로뻬옷
듬을사믈셔니므릇送송終종ᄒᆞᄂᆞᆫ禮례ᄂᆞᆫ죽거든골
장ᄒᆞᄂᆞᆫ비라 집의이시며엿슴을샹칭케ᄒᆞᆯ셔니비ᄉᆞ
사ᄅᆞᆷ이반ᄃᆞ시誠셩ᄒᆞ며반ᄃᆞ시信신ᄒᆞᆫ밧者
쟈ᄂᆞᆫ오직棺관槨곽과衣의衾금이지극히졀실
ᄒᆞ고종요로온더라그다ᄅᆞᆫ만ᄒᆞᆫ문구와밧그로
삼인거손다굿티여ᄒᆞ더아니ᄒᆞᆯ거시니블가의
追튜薦쳔ᄒᆞᄂᆞᆫ말은 즁의됴흔더가게ᄒᆞᆫ다ᄒᆞᄂᆞᆫ일이다 진실로사

득ᄒᆞ고어두어알기어렵거니와그러나비어던
사ᄅᆞᆷ이닐오ᄃᆡ天텬堂당이즁의니ᄅᆞ논부텨인노ᄯᅡ히라업ᄉᆞᆫ
댄말려니와이시면어ᄃᆡ사ᄅᆞᆷ이오로고地디獄
우이즁의니ᄅᆞ논죄지은사ᄅᆞᆷ가도노ᄃᆡ라업ᄉᆞᆫ댄말려니와이시
면사오나온사ᄅᆞᆷ이들리라ᄒᆞ니진실로이理니
로ᄇᆞᆯ기알면즁파승을아텸ᄒᆞ야위와드며지ᄒᆞ
야공양ᄒᆞ기로ᄂᆡ이ᄒᆞ노거시그유익더아님
을ᄇᆡᆨ이가히알셰라ᄯᅩ드ᄅᆞ니싀골풍쇽이서ᄅᆞ
니어권당과벗을送송葬장ᄒᆞᆯ제或혹풍양과돗
틀벼혀다히며술을취ᄒᆞ야쥬졍ᄒᆞ기예니론다

ᄒᆞ니맛당이슬허ᄒᆞᆯᄃᆡ즐겨홈이더욱禮톄아니
니라經경에이텃글이라닐오ᄃᆡ효도와공슌이지극ᄒᆞᆷ
이神신明명을通통ᄒᆞᆫ다ᄒᆞ니天텬下하의일만
가지어던일에孝효ㅣ本본이되ᄂᆞ니말일에能
능히뵤ᄌᆞ러니孝효道도를行ᄒᆡᆼᄒᆞ면ᄆᆞ올사ᄅᆞᆷ
이董동히디기며귀예서공경ᄒᆞᆯᄲᅮᆫ이아니라天
텬地디鬼귀神신도ᄯᅩᄒᆞᆫ쟝ᄎᆞᆺ도으려니와말일
그悖패逆역ᄒᆞ야不불孝효ᄒᆞ면ᄆᆞ올사ᄅᆞᆷ이賤
쳔히너기며귀예셔다ᄉᆞ릴ᄲᅮᆫ이아니라天텬地
디鬼귀神신도ᄯᅩᄒᆞᆫ쟝ᄎᆞᆺ주기실거시니이제請

쳥홈은鄕향黨당隣닌里니ᄉᆞ이예서로勸권勉
면ᄒᆞ야그글의뜻을아더못ᄒᆞ리잇거든어룬어
딘사ᄅᆞᆷ이맛당이터블어플어블러히여곰알게
ᄒᆞ면거의사ᄅᆞᆷ마다興흥起긔ᄒᆞ며집마다본바
다졉졉슙박ᄒᆞᆫ테풍쇽애도라갈거시니도라보
건댄아ᄅᆞᆷ답디아니ᄒᆞ랴

訓훈民민歌가

父부義의母모慈ᄌᆞ

아바님날나ᄒᆞ시고어마님날기ᄅᆞ시니두분곳아니시면이몸이사라실가하ᄂᆞᆯᄀᆞᄐᆞᆫᄀᆞ업ᄉᆞᆫ은덕을어ᄃᆡ다혀갑ᄉᆞ오리

兄형友우弟뎨恭공

형아아ᄋᆞ야네ᄉᆞᆯ홀ᄆᆞ져보아뉘손ᄃᆡ타나관ᄃᆡ양ᄌᆞ조차ᄀᆞᄐᆞᆫ손다ᄒᆞᆫ졋먹고길러나이셔ᄃᆞᆺᄆᆞᄋᆞᆷ을먹디마라

君군臣신

님금과ᄇᆡᆨ셩과ᄉᆞ이하ᄂᆞᆯ과ᄯᅡ히로ᄃᆡ내의셜운이
클다아로려ᄒᆞ시거든우린돌솔진미나리롤ᄒᆞᆫ자
엇더머그리

子ᄌᆞ孝효

어버이사라신제셤길일란다ᄒᆞ여라디나간후면
애ᄃᆞ다엇디ᄒᆞ리평싱애고텨못ᄒᆞᆯ이리잇ᄲᅮᆫ인가
ᄒᆞ노라

夫부婦부有우恩은

ᄒᆞᆫ몸둘헤ᄂᆞᆫ화부부를삼기실샤이신제ᄒᆞᆷ게늙고
주그면ᄒᆞᆫᄃᆡ간다어ᄃᆡ셔망녕의써시눈흘긔려ᄒᆞ

ᄂᆞ뇨

男남女녀有유別별

간나ᄒᆡ가ᄂᆞᆫ길흘ᄉᆞ나ᄒᆡ에도ᄃᆞ시ᄉᆞ나희녀ᄂᆞᆫ길
흘계집이츼도ᄃᆞ시쥐남진쥐계집아니어든일홈
묻디마오려

子ᄌᆞ弟뎨有유學ᄒᆞᆨ

네아ᄃᆞᆯ효경닑뎌니어도록비환ᄂᆞ니내아ᄃᆞᆯ쇼ᄒᆞᆨ
은모리면므ᄎᆞᆯ로다어니쥐이두글비화어뎐거든
보려뇨

鄕향閭려有유禮례

ᄆᆞ을사ᄅᆞᆷ들항을효일ᄒᆞᆫ자ᄉᆞ라사ᄅᆞᆷ이되여나셔
을티곳못ᄒᆞ면ᄆᆞ쇼를갓곳갈싀워밥머기나다ᄅᆞ
라

長댱幼유有유序셔

ᄑᆞᆯ목쥐시거든두손으로바티리라나갈ᄃᆡ겨시거
든막대들고조ᄎᆞ리라향음쥬다파ᄒᆞᆫ후에뫼셔가
려ᄒᆞ노라

朋붕友우有유信신

ᄂᆞᄆᆞ로삼긴듕의벗곳티유신ᄒᆞ랴내의왼이를다
닐오려ᄒᆞ노매라이몸이번님곳아니면사ᄅᆞᆷ되미

쉬올가

貧빈窮궁憂우患환親친戚쳑相샹救구

어와뎌족해야밥업시엇디훌ᄭᅭ어와뎌야쟈바옷
엽시엇디훌ᄭᅭ미흔일다닐러ᄉᆞ라돌보고져ᄒᆞ노
라

婚혼姻인死ᄉᆞ喪상隣린里니相샹助조

비졉상ᄉᆞ돌흔어도록출호ᄉᆞ다네ᄯᅳᆯ뎌방은언졔
나마치ᄂᆞᄉᆞ다내게도업다거니와돌보고져ᄒᆞ노
라

無무惰타農농桑상

오ᄂᆞᆯ도다새거다호믜메고가쟈ᄉᆞ라내논다ᄆᆡ여
든네논졈ᄆᆡ여주마올길헤ᄲᅩᆼᄯᅡ다가누에머켜보
쟈ᄉᆞ라

無무作작盜도賊적

비록못니버도ᄂᆞᆷ의오ᄉᆞᆯ앗디마라비록못머거도
ᄂᆞᆷ의밥을비디마라ᄒᆞᆫ적곳ᄠᅵ시론후면고텨싯기
어려우리

無무學학賭도博박無무好호爭정訟송

샹뉵쟝긔ᄒᆞ디마라용ᄉᆞ그월ᄒᆞ디마라집배야므
ᄉᆞᆷᄒᆞ며ᄂᆞᆷ의원슈될줄엇디나라히법을셰우샤죄

인ᄂᆞᆫ줄모로ᄂᆞᆫ다

無무以이惡악陵능善션無무以이富부呑ᄐᆞᆫ
貧빈缺결

行ᄒᆡᆼ者쟈讓양路노耕경者쟈讓양畔반缺결
班반白ᄇᆡᆨ者쟈不블負부戴ᄃᆡ

이고진뎌늘그니짐프러나ᄅᆞᆯ주오나ᄂᆞᆫ졈엇거니
돌히라므거올가늘거도셜웨라거든지믈조차지
실가

右短歌十六은即 宣廟朝相臣鄭澈이爲江原
監司時所作者也니蓋因陳古靈諭文中諸條ᄒᆞ야

忝以君臣長幼朋友三者ᄂᆞᆫ使民으로尋常誦習ᄒᆞ야
諷詠在口則其於感發人之性情애不無所助故
로附刻於此而名曰訓民歌云ᄒᆞ라

右우短단歌기열여ᄉᆞᆺ슨 宣션廟묘朝됴相
샹臣신鄭뎡澈텰이江강原원監감司ᄉᆞᄒᆞ여
실제지은거시니대개陳딘古고靈령諭유文
문中듕모든됴건을因인ᄒᆞ야셔君군臣신長
댱幼유朋븡友우세가지로버터ᄒᆞ니ᄇᆡᆨ셩으
로ᄒᆞ여곰샹해외와니겨읇퍼입의두면그사
ᄅᆞᆷ의性셩情졍을감동ᄒᆞ야ᄀᆡ발케ᄒᆞ기예도

음이업디아닐쉬실서여긔븟텨사기고일홈
을빅텽ᄀᆞ르치ᄂᆞᆫ노래라ᄒᆞ노라

警경民민編편終종

請刊警民編廣布諸路劄

完南府院君臣李厚源伏以臣於丙申秋忝冒禮判嘗進 啓於 榻前曰喪亂以來人心世道日益偷薄識可寒心所謂警民編卽己卯名臣金正國按節海西時所爲書也其於牖民化俗之方不無少補請以是書刊布諸路卽 賜允可而第其原本遍求不得久乃得之於海西卽寫本也又無諺解無諺解則窮鄕氓隷難於通曉故遂用其本校證翻譯且取陳古靈眞西山諭俗諸篇附於其下而間有節略者欲民之易曉也偶得 宣祖朝相臣鄭澈所作訓民歌

添録者欲使村閭婦孺尋常誦習有所感發而懲創
也會臣去職未及刊布臣常以初旣建白不克奉行
為恨近聞倫紀之變或作於輦轂之下 聖上臨筵
深以導率乖方為憂歎臣於是尤不勝感慨于中玆
敢繕寫送于南宮倘以此遍刊於諸道而着令按臣
分付列邑廣布民間諄諄告諭俾民遷善遠罪去薄
從厚則庶幾民俗漸變有以仰副我 殿下敦厚風
俗之意矣大抵為政之本風化是先必其導迪得宜
然後可使人人興起而慕效苟或不然而欲民化服
則何以異於止聲而求響乎昔我 世宗大王召羣

臣議所以敦孝悌厚風俗之方卞季良請廣布孝行
録等書使閭巷小民尋常讀之使之駸駸然入於孝
悌禮義之俗迺命偰循改撰孝行録以進旣又 中
命攸司明示教條以成仁厚之風嗚呼我朝之治莫
盛於 英廟而其所以疇咨講求者不出乎此豈不
以有國先務莫過於厚倫成俗而能致其厚倫成俗
之義者又必以盡其導率爲本也哉金正國當 中
廟圖媺至治之日分憂一道首著是編懇懇誨諭者
其亦以是而臣之終始惓惓於此書必欲其梓行者
亦猶是已惟 聖主垂諒焉取 進止戊戌月日